

외식전공 대학생의 생물학적 성과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진로태도성숙도 차이

나 태 균[¶]

두원공과대학교 호텔조리과[¶]

The Differences of Career Attitude Maturity according to Biological Sex and Sex-role Identity Types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Foodservice

Tae-Kyun Na[¶]

Dept. of Hotel Culinary Arts, Doowon Technical University Colleg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vels of career attitude maturity according to biological sex and sex-role identity types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foodservice.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300 students majoring in foodservice-related fields from 4 colleges located in Kyonggi, Daejeon, and Daegu province were selected as a sample. A total of 266 copies of the questionnaire were analyzed after excluding 34 respon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perceived career attitude maturity level of male students was higher than that of female students($p<.05$). Second, perceived career attitude maturity level of the students categorized as the androgynous type was the highest, followed by the masculine, feminine and undifferentiated types of students ($p<.05$). Third, the levels of decisiveness, purposiveness, self-reliance of male students categorized as androgynous, masculine, and undifferentiated types were higher than those of female students. The levels of decisiveness, purposiveness, self-reliance perceived by female students classified as femininity were higher than those of male students. These results show that the androgynous type is considered to be more desirable and positive for career development. Therefore, a career counseling program is needed to enhance androgyny based on biological sex.

Key words: Biological sex, Sex-role identity, Career attitude maturity, Foodservice, College student

I. 서 론

일반적으로 진로선택의 영역은 전통적 영역과 비전통적 영역으로 나뉘는데, 이는 대학의 전공 또는 직업 내에서 성별의 비율을 기준으로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여성중심(female-dominated)의 전공 또는 직업과 여성이 소수인 남성중

심(male-dominated)의 전공 또는 직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Lee HR · Cheon MS 2003). 국내 대학의 외식관련 전공자의 남녀비율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구하기 힘들지만 Yoon JY(2010)의 연구에서와 같이 외식전공 대학생들이 졸업 후 가장 취업하기를 원하는 직장인 호텔 조리부서를 살펴보면 서울시내에 위치한 특 1급 호텔 15개 조리부서의

¶: 나태균, 031-935-7351, food@doowon.ac.kr,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주라위길 158 두원공과대학교

총인원은 2548명이며 그 중 여성 조리사로 종사하고 있는 인원은 310명으로서 21.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MH 2010). 즉 특급 호텔 조리부의 경우 여성이 소수인 남성중심(male-dominated)의 영역으로서 남성 성의 집단에 계는 정상적인 직업이지만 여성 성에게는 전형적인 직업으로 여겨지지 않는 직업이다.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종사하는 여성인력을 대상으로 한 Kang JH(2005)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수준과 고용 및 근무환경에서 여성인력에 대해 주어지는 불이익이 아직까지 불만거리로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Kim MH(2010)는 호텔 조리부가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여성종사원의 고용을 제한하고 고용이 된 후에도 임금차별, 성별분업, 여성노동의 주변화 등 다양한 성차별이 발생되어왔다고 주장하였다. 즉 여성에 대한 탐탁지 않은 시선과 여성의식의 보수성 등 여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남아 있어 그들의 근로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Back YR 2008; Park SJ 2008), 특히 외식관련 남성 전공자 보다 여성 전공자가 재학 중 현장실습 경험 후 비전통적인 영역인 남성 중심적인 직업에서의 능력과 자신감 결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여 전공분야에 대한 흥미와 직업영역에서의 부조화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외식관련 전공분야의 경우 조리 분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각종 매체로부터 수집한 불명확한 정보에 따라 학생들이 외식관련 학과를 선택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조리와 관련된 인식이 높아지면서 조리관련 전공에 대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Oh ST 2013). 그러나 호텔기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유적인 측면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유연성을 갖기 위해 인력다운사이징을 실시하는 새로운 경영환경시대가 도래하면서(Kim HJ 2013) 외식전공 대학생이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직장인 호텔로 취업하는 것은 몇몇 전공자에게만 해당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따라 외식관련 전공자들이

다른 전공분야로 전직을 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외식관련 전공의 진로선택 영역측면에서 본 연구에 주목하고자하는 요인은 생물학적 성과 성역할정체감(sex-role identity)이다. 이제까지는 진로발달 분야에 있어 생물학적 성차가 강조되어 왔으나(Gottfredson GD 1981) 최근에 이르러 단순한 성차보다는 개인차를 중요시하는 견해에 따라 자아개념의 대안으로 성역할 정체감을 성역할과 관련된 성격변인으로 사용하여 진로정체감, 진로준비행동 등과의 관계를 분석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Kim EH·Kim BW 2010; Koo CM 2005). 특히 Wolfe LK & Betz NE(1981)는 여성의 직업선택에 있어 성격, 능력 보다는 성역할 관련 변인이 강력하게 작용한다고 하였고, Lee KH(2003)은 개인이 미래의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직업의 성유형과 자신의 생물학적 성 특성 및 성역할 정형화 특성이 일치하는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외식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선택과 방향 설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는 생물학적 성 및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진로관련 변인 중 진로태도성숙도의 차이를 밝혀내고자 하며 이를 통해 외식관련 전공자들을 위한 보다 원활한 진로지도의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성역할 정체감

Bem SL(1974)은 성역할 정체감(sex-role identity)이란 심리적 성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자신이 속한 문화권 내에서 생물학적 성에 적합한 것으로 고려되는 성격 특성, 행동양식 및 가치에 비추어 개인이 자신을 얼마만큼 남성적인 성격특성 혹은 여성적인 성격 특성을 가졌는가를 평가하는 개념으로 정의 하였으며, Ku SH(2006)은 남녀의

생리학적 차이에 근거를 가지며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사회화를 통해 습득하고 규정된 남녀의 성격특성, 선호경향, 행동 등을 일컫는 총체적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성역할 정체감에 대해 1970년대 이전에는 여성성과 남성성이 하나의 연속선의 양극으로 여겨졌으나 급격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난 현대사회에서는 남녀의 역할구분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Bem SL(1974)은 전통적인 남성성, 여성성의 이원적인 구분과는 달리 양성성(androgyny)의 개념을 제안하면서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유형과 함께 네 가지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을 제시하였다(Lee JH · Jeong KY 2009). Choi IS · Kim CH (2004)는 성역할 정체감 유형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남성성 유형은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한 남성적 특성으로 인정되는 적극성, 활동성, 독립성 등은 높고, 여성적 특성은 낮은 유형이다. 여성성 특성은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한 여성의 특성으로 인정되는 부드러운, 민감성, 다정함 등은 높으며 남성적 특성은 낮은 유형이다. 또한 양성성 유형은 바람직한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이 결합되어 공존하는 유형이며, 미분화 유형은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 모두 제대로 표현되지 않아 모두 낮은 유형이다.

2. 진로태도성숙도

Super DE(1955)는 진로성숙도(career maturity)에 대해 진로의 발달수준을 뜻하는 것으로 직업을 알아보고, 준비하고, 자리 잡고, 종사하고, 직업에서 물러날 때까지의 발달과업(vocational tasks)에 대처해 나가는 태도적·인지적인 준비도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진로성숙도를 발달단계의 연속으로 바라본 Ji YK(2004)는 자아의 이해와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의 직업적성에 부합하는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개인의 진로계획, 진로선택·결정에 대한 상대적인 진로준비의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진로성숙도를 검사하기 위한 측정도구 개발의

선두주자는 Supper DE(1955)와 Crites JO(1961)가 대표적이다. Supper DE(1955)는 진로유형에 관한 종단연구를 통해 진로성숙도 검사인 CDI(career development inventory)를 개발하였고, 이어 Crites JO(1961)는 진로결정 과정에서의 정의적·인지적 발달 정도를 측정하는 CMI(career maturity inventory)를 개발하였다. 국내의 경우 Crites JO(1978)가 개발한 CMI의 태도척도(attitude scale)와 능력척도(competency scale) 중에서 태도척도를 선별하여 Lee KH · Han JC(1997)이 결정성, 목적성, 준비성, 독립성, 확신성으로 구분하여 한국인을 기반으로 타당성과 신뢰성이 입증된 검사도구를 사용한 연구(Kim JU · Kim MS 2012; Jeong HY 2010), 임언 등 (2001)이 진로성숙을 태도와 능력 및 행동의 세 측면으로 구성하여 개발한 척도를 사용한 연구(Seon HY 2011; Yang MH 등 2010)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진로성숙의 개념과 구조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개념화하고 있어 일관된 합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진로성숙의 개념이 태도적인 요소와 능력적인 요소 모두 포함한다고 볼 때 외식관련 전공자의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가능한 한 함께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Cho TY · Lee MS 2009; Koo HY · Park HS 2005)에서 진로성숙의 구성요인 중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의 확신, 적응, 준비하는 정도를 말하는 태도적인 측면을 측정하여 각 발달 단계의 필요한 차원과 더욱 발달시켜야 할 차원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외식관련 전공자들의 진로성숙도 중 태도적인 측면만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3. 생물학적 성, 성역할 정체감과 진로태도성숙도

먼저 생물학적 성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국내의 최근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여자의 진로성숙 수준이 남자에 비해서 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된 연구(Cha JE 등 2007), 남성의 진로성숙 수준이 여성에 비해서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된 연구(Lim JS 등 2012; Lee JH·Kim SJ 2009), 성별에 따라 진로성숙도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Yang MH 등 2010; Koo CM 2005) 등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개인의 성별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에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개인의 전공분야 또는 지역 등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최근 들어 성역할 정체감이 직업결정과 관련된 변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공학계 여대생과 인문계 여대생을 비교분석한 Yoon D 등(2009)의 연구에서는 공학계열 여대생의 남성성이 인문계열 여대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인문계 여대생의 경우 남성성이 높으면 진로성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공학계 여대생의 경우 남성성이 진로성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oo CM(2005)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결정성에는 남성성이, 타협성은 양성성과 남성성의 순으로, 독립성은 남성성과 양성성의 순으로, 성향성은 남성성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학생의 경우 결정성에는 양성성이, 타협성은 양성성과 남성성의 순으로, 독립성과 성향성은 남성성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의 생물학적 성보다는 성역할 정체감이 개인의 진로발달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Burnett JW *et al.* 1995), 특히 양성성 유형이나 남성성 유형에서 보다 높은 진로성숙 수준을 보인다는 공통된 결과를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식관련 전공자의 생물학적 성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진로성숙도중 태도적 측면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외식관련 전공자의 생물학적 성에 따라 진로태도성숙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 외식관련 전공자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라 진로태도성숙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 외식관련 전공자의 생물학적 성과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라 진로태도성숙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전국 2년제 대학의 외식관련 학과의 재학생 중 경기도,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전문대학 4개교의 외식관련 전공자 300명을 편의 표집하여 2013년 09월 1일부터 30일 까지 약 30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후 일률적인 답변을 한 34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266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1학년이 146명(54.9%), 2학년이 120명(45.1%)으로 나타났다. 20세 또는 20세 미만이 114명(42.9%), 21세가 73명(27.4%), 23세가 38명(14.3%), 22세가 31명(11.7%), 24세 이상이 10명(3.8%)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학생이 162명(60.9%), 여학생이 104명(39.1%)으로 나타났다.

2. 측정 도구

1) 성역할 정체감

국내의 성역할 정체감 측정도구로는 Chung JK(1990)이 Bem SL(1974)의 성역할검사도구(BSRI: Bem` sex role inventory)를 토대로 KSRI(Korean sex role inventory)를 개발하였고 국내에서 성역할 정체감 검사지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성역할 정체감이 사회문화적인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화 가능한 개념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외식관련 전공자의 성역할 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국내에서 가장 최근에 개발된 Kim HR(2003)의 성역할정체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Kim HR(2003)의 측정도구는 18개의 남성성 문항과 18개의 여성성 문항, 성역할과 관계없는 14개의 중성성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식 5점 평정 척도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2) 진로태도성숙도

외식관련 전공자의 진로성숙도중 태도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해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사용된 Lee KH·Han JC(1997)이 개발한 진로태도성숙도검사(career attitude maturity inventory) 도구를 사용하였다. 진로 결정 이전에 성숙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이 척도는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고성 정도를 측정하는 결정성(10문항), 개인이 직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지향성을 측정하는 목적성(8문항), 진로선택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가를 측정하는 확신성(10문항), 진로 결정에 필요한 사전이해와 준비정도, 그리고 진로에 대한 관심정도를 측정하는 준비성(10문항), 자신의 진로문제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는가 아니면 타인에게 의존하여 결정하는 가를 측정하는 독립성(9문항)의 5가지 하위척도 총 4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식 5점 평정 척도를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 처리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측정도구의 기술 통계를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

며, 진로태도성숙도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외식관련 전공자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서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만 고려하여 Spence JT 등(1975)이 고안한 중앙치분리법(median-split method)을 사용하였으며 남성성 점수는 높고 여성성 점수는 낮은 개인을 남성성 유형(masculinity type), 여성성 점수는 높고 남성성 점수는 낮은 개인을 여성성 유형(femininity type), 남성성과 여성성 점수가 모두 높은 개인을 양성성 유형(androgyny type), 남성성과 여성성 점수가 모두 낮은 개인을 미분화 유형(undifferentiated type)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교차분석(cross tabulation)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외식관련 전공자의 생물학적 성과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진로태도성숙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IV. 분석결과

1. 성역할 정체감 유형 분류

<Table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남성성 유형의 총 18개의 설문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크론바하의 알파(Cronbach's Alpha)의 계수를 구한 결과 전체 신뢰도는 0.895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성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중앙치는 3.06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기준으로 총 266명중 133명(50.0%)의 전공자가 중앙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33명(50.0%)의 전공자가 중앙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성성 유형의 총 18개의 설문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크론바하의 알파(Cronbach's Alpha)의 계수를 구한 결과 전체 신뢰도는 0.935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성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중앙치는 3.00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기준으로 총 266명중 125명(47.0%)의 전공자가 중앙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41명(53.0%)의 전공자가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sex-role identity(n=266)

Masculinity	Mean±SD	Femininity	Mean±SD
I am reliable.	3.04±0.62	I am delicate.	3.26±0.65
I am taciturn.	3.08±0.64	I am a benign person.	3.15±0.69
I am masculine.	3.15±0.59	I am kind.	3.14±0.69
I am strong.	3.11±0.63	I am mild-mannered.	3.15±0.72
I am confident.	3.07±0.58	I am tender.	3.21±0.65
I am easy-going.	3.07±0.63	I am affable in manner.	3.22±0.69
I am energetic and driven.	3.12±0.65	I am soulful.	3.19±0.74
I am independent.	3.09±0.64	I am neat.	3.21±0.66
I am energetical.	3.13±0.63	I am warm-hearted.	3.15±0.66
I am ambitious.	3.10±0.63	I am merciful.	3.19±0.69
I am solemn.	3.14±0.60	I am a man of sentiment.	3.16±0.63
I am highly motivated.	3.11±0.63	I am calm.	3.21±0.72
I argue my beliefs.	3.11±0.64	I am frugal.	3.21±0.64
I have a strong will power.	3.14±0.58	I am gentle.	3.23±0.66
I am broad-minded.	3.11±0.63	I am sensitive.	3.18±0.68
I have a strong tenacity.	3.12±0.62	I am dutiful.	3.15±0.68
I am faithful.	3.05±0.65	I am meticulous.	3.17±0.65
I have leadership.	3.11±0.64	I am as meek as a lamb.	3.28±0.67
Median	3.06	Median	3.00
Low	133(50%)	Low	125(47.0%)
High	133(50%)	High	141(53.0%)
Cronbach's alpha	0.895	Cronbach's alpha	0.935

중앙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진로태도성숙도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외식관련 전공자의 진로태도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가 연구하고자하는 개념을 실제로 적절하게 측정하였는지를 나타내는 구성개념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an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요인 추출방법은 요인들 간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고 요인회전은 각 요인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베리맥스(varimax)를 실행하였다. 또한 요인 추출 과정에 있어서는 고유치(eigen value) 기준을 적용하여 1.0보다 큰 변수로 적용하였고 더불어 설문문항과 요인들 간의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alpha값을 구하였다. 먼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통계 값이 8496.1(p<0.001)로 나타나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룰만한 상관관계가 충분

하고 측정 도구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인가를 살펴보는 KMO(Kaiser-Meyer-Olin)값은 0.969로 나타나 요인분석 가정을 만족시키므로 다음과 같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5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5개의 요인 적재값이 0.4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진로태도성숙도 설문문항의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의 계수를 구한 결과 신뢰도는 0.898이상 높은 값으로 나타나 최소 신뢰계수(0.70)를 상회하고 있어 내적 일관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 유형

외식전공 대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성별, 학년, 인턴십 경험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 유형을 분석하기 위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2〉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career attitude maturity(n=266)

Variable	Mean±SD	Factor loading ²⁾				
		1	2	3	4	5
I am confused about which career to choose because my surroundings have different ideas each other.	3.36±0.86 ¹⁾	.684	.262	.243	.125	.116
Even if I change my mind later, I have first decided one thing I want to do.	3.32±0.91	.639	.277	.347	.221	.240
I have already decided what to do in the future.	3.30±0.88	.638	.285	.217	.189	.180
I have something I would like to do, but I don't know what to choose.	3.28±0.90 ¹⁾	.631	.299	.219	.186	.275
I have already made a definite decision about my future career.	3.28±0.88	.616	.198	.248	.208	.206
I don't have anything definite to do in the future.	3.37±0.88 ¹⁾	.613	.196	.273	.281	.247
I don't worry much about my career because I have already decided it.	3.29±0.87	.604	.347	.290	.272	.135
I don't know what to do in the future after graduation because I did not think about my future career.	3.34±0.86 ¹⁾	.571	.226	.259	.292	.332
It is hard to decide which career to take.	3.35±0.93 ¹⁾	.563	.326	.356	.249	.233
Even if I often draw my future, I haven't thought about a specific job yet.	3.35±0.87 ¹⁾	.550	.251	.375	.204	.245
In order to get the job I want, I have to set up my plans in advance.	3.45±0.73	.208	.676	.179	.181	.081
I would like to discuss my future career with those who have jobs I want.	3.43±0.80	.269	.663	.126	.204	.178
I don't have much interest in finding promising jobs in the future.	3.35±0.78 ¹⁾	.206	.633	.171	.221	.274
When I see successful people in their career fields, I act like them because I want to be like them.	3.41±0.75	.167	.629	.273	.073	.262
Even if I don't have particular decisions yet, I have to think about my future and be prepared as always.	3.42±0.76	.218	.617	.282	.202	.012
When I read newspaper, I read the stories of those who succeeded in their job with much interest.	3.42±0.75	.253	.612	.264	.149	.162
I want to have a consultation to know about my interest or character.	3.35±0.80	.225	.579	.179	.184	.321
I want my graduated seniors' presentation about entering schools and future career.	3.41±0.79	.286	.576	.219	.132	.254
At the present when I am in school now, I draw a picture about my future life at work.	3.45±0.72	.149	.536	.373	.323	.129
I have much interest in getting the data for my planned future and related materials.	3.42±0.72	.247	.527	.154	.298	.229
If I decide my career against my parents' opposition, I might regret later.	3.41±0.81 ¹⁾	.307	.285	.648	.174	.192
I will choose my job that my parents or neighbors say to be good.	3.44±0.82 ¹⁾	.271	.171	.626	.116	.230
I will decide my job according to my standards.	3.40±0.77	.223	.147	.611	.224	.307
I have to choose a job I like regardless of other people's opinions.	3.42±0.76	.133	.306	.601	.143	.228
I can decide my career only if I have directions from other people.	3.40±0.79 ¹⁾	.270	.183	.594	.244	.189
I will choose my career according to the directions that my parents want.	3.40±0.87 ¹⁾	.395	.272	.591	.271	.169
No matter what other people say, I have to choose a job I want.	3.42±0.83	.322	.335	.588	.303	-.006
In order to live my own life, I have to decide my job according to my belief.	3.41±0.86	.317	.219	.564	.207	.247
If my parents don't agree with the job I want, it will be hard to choose my job.	3.39±0.84 ¹⁾	.380	.252	.561	.243	.167
When choosing a job, I consider the economic aspect more than anything else.	3.39±0.83 ¹⁾	.155	.097	.127	.739	.266
I want a job which has short working time and good working environments.	3.42±0.84 ¹⁾	.205	.259	.166	.692	-.019
When choosing a job, I first consider the success in that job.	3.41±0.83 ¹⁾	.144	.156	.183	.680	.304
I want a job with high salary regardless of kind of work.	3.35±0.85 ¹⁾	.174	.126	.080	.661	.352
I want a job that I can comfortably make much money rather than I am rewarded from working hard.	3.41±0.83 ¹⁾	.195	.290	.245	.659	.119
Even if it doesn't fit me, I want a job that other people envy.	3.39±0.83 ¹⁾	.220	.250	.287	.654	.017
I will find a top class job regardless of my aptitude or capability.	3.34±0.85 ¹⁾	.295	.150	.177	.593	.284
When I choose a job, I have to consider the promotion opportunity first, rather than the nature of the job.	3.40±0.79 ¹⁾	.188	.290	.371	.536	.087
I am lack of confidence in myself and my job.	3.38±0.78 ¹⁾	.249	.272	.247	.168	.685
I don't have a confidence whether I could succeed in the job I choose.	3.35±0.81 ¹⁾	.236	.267	.359	.241	.553
I am sure to get the acknowledgment from my seniors in the company that I like to enter.	3.38±0.85	.397	.214	.189	.276	.523
I am nervous because I might not have a career I want.	3.42±0.79 ¹⁾	.252	.360	.367	.219	.507
I can get everything I want only if I make efforts.	3.40±0.79	.410	.247	.110	.281	.457
I have a doubt whether I could succeed in my job I take because I don't have a firm belief.	3.35±0.86 ¹⁾	.338	.372	.263	.257	.449
I worry whether my job I choose could make myself to be a man I want.	3.36±0.82 ¹⁾	.389	.232	.316	.225	.442
No matter how hard I try, I might not get a job I want in some cases.	3.38±0.78 ¹⁾	.270	.207	.374	.270	.438
I have a confidence to do well whatever job I take.	3.38±0.83	.236	.425	.264	.254	.435
I have a confidence to do well in my job as much as other people do in the same job I choose.	3.33±0.80	.341	.350	.268	.251	.418
Eigen value		6.418	6.305	5.817	5.428	4.217
Cumulative of variance(%)		13.656	27.072	39.448	50.997	59.968
Cronbach's alpha		0.935	0.908	0.916	0.898	0.919

KMO=0.969, Bartlett test=8496.1(df=1081, p<0.001)

1) It is the reverse scoring.

2) 1=Decisiveness, 2=Preparation, 3=Independence, 4=Purposiveness, 5=Self-reliance.

<Table 3> Distribution of the types of sex-role identity according to social &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		Sex-role identity type				Total	Chi-square
		Androgyny	Masculinity	Femininity	Undifferentiated		
Gender	Female	22(21.2%)	6(5.8%)	49(47.1%)	27(26.0%)	104(100.0%)	49.522*
	Male	40(24.7%)	66(40.7%)	30(18.5%)	26(16.0%)		
Grade	First	14(9.6%)	19(13.0%)	73(50.0%)	40(27.4%)	146(100.0%)	103.728*
	Second	48(40.0%)	53(44.2%)	6(5.0%)	13(10.8%)		
Total		62(23.3%)	72(27.1%)	79(29.7%)	53(19.9%)	266(100.0%)	

* $p < 0.001$

266명의 전체 응답자 중 79명(29.7%)이 여성성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다음으로 72명(27.1%)이 남성성 유형, 62명(23.3%)이 양성성 유형, 53명(19.9%)이 미분화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보다 세부적으로 성별에 따른 분류 결과를 살펴보면 여학생 104명 중 49명(47.1%)이 여성성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다음으로 27명(26.0%)이 미분화 유형, 22명(21.2%)이 양성성 유형, 6명(5.8%)이 남성성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남학생 162명 중 66명(40.7%)이 남성성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다음으로 40명(24.7%)이 양성성 유형, 30명(18.5%)이 여성성 유형, 26명(16.0%)이 미분화 유형으로 분류되었다(chi-square=49.522, $p < 0.001$). 학년에 따른 분류 결과를 살펴보면 1학년 146명 중 73명(50.0%)이 여성성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다음으

로 40명(27.4%)이 미분화, 19명(13.0%)이 남성성, 14명(9.6%)이 양성성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2학년 120명 중 53명(44.2%)이 남성성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다음으로 48명(40.0%)이 양성성 유형, 13명(10.8%)이 미분화 유형, 6명(5.0%)이 여성성 유형으로 분류되었다(Chi-square=103.728, $p < 0.001$).

4.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진로태도성숙도

외식전공 대학생의 생물학적 성과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진로태도성숙도 요인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이변량 분산분석의 결과는 <Table 4>, <Table 5>와 같다.

먼저 진로태도성숙 요인 중 결정성에 대한 생

<Table 4> The level of career attitude maturity according to biological sex and sex-role identity types

		Androgyny	Masculinity	Femininity	Undifferentiated	Total
Decisiveness	Female	3.77±0.53	3.43±0.43	2.95±0.40	2.50±0.36	3.03±0.61
	Male	4.02±0.55	3.79±0.27	2.77±0.39	2.87±0.76	3.51±0.69
	Total	3.93 ^{a1} ±0.56	3.76 ^b ±0.30	2.88 ^c ±0.40	2.68 ^d ±0.61	3.32±0.70
Purposiveness	Female	3.52±0.59	3.33±0.28	3.13±0.57	2.76±0.46	3.13±0.59
	Male	3.95±0.50	3.79±0.29	3.00±0.43	3.00±0.69	3.56±0.61
	Total	3.80 ^a ±0.57	3.75 ^a ±0.31	3.08 ^b ±0.52	2.88 ^c ±0.59	3.39±0.64
Independence	Female	3.71±0.58	3.39±0.51	2.97±0.33	2.77±0.49	3.10±0.56
	Male	4.11±0.39	3.77±0.33	3.11±0.40	3.01±0.69	3.61±0.60
	Total	3.96 ^a ±0.50	3.74 ^b ±0.36	3.02 ^c ±0.36	2.89 ^d ±0.60	3.41±0.63
Preparation	Female	3.87±0.46	3.45±0.45	3.02±0.25	2.87±0.38	3.19±0.51
	Male	3.94±0.41	3.76±0.28	3.18±0.35	2.88±0.56	3.56±0.54
	Total	3.91 ^a ±0.43	3.74 ^b ±0.30	3.08 ^c ±0.30	2.88 ^d ±0.47	3.41±0.56
Self-reliance	Female	3.70±0.69	3.33±0.38	3.10±0.34	2.63±0.32	3.12±0.57
	Male	4.02±0.42	3.76±0.27	2.97±0.34	2.87±0.60	3.54±0.60
	Total	3.90 ^a ±0.55	3.73 ^b ±0.30	3.05 ^c ±0.35	2.75 ^d ±0.49	3.37±0.62

1) The results of Duncan' post-hoc test

〈Table 5〉 The results of two-way ANOVA

	Source	SS	df	MS	F	R ²
Decisiveness	Biological sex(A)	1.682	1	1.682	8.192*	
	Sex-role identity type(B)	53.664	3	17.888	87.120**	0.595
	A×B	3.120	3	1.040	5.064*	
	Error	52.974	258	0.205		
	Sum	3069.880	266			
Purposiveness	Biological sex(A)	2.576	1	2.576	10.840***	
	Sex-role identity type(B)	25.101	3	8.367	35.206***	0.427
	A×B	3.105	3	1.035	4.355**	
	Error	61.316	258	0.238		
	Sum	3163.109	266			
Independence	Biological sex(A)	3.555	1	3.555	18.633***	
	Sex-role identity type(B)	36.323	3	12.108	63.452***	0.537
	A×B	0.596	3	0.199	1.041	
	Error	49.231	258	0.191		
	Sum	3198.926	266			
Preparation	Biological sex(A)	0.791	1	0.791	5.779*	
	Sex-role identity type(B)	35.113	3	11.704	85.491***	0.576
	A×B	0.421	3	0.140	1.026	
	Error	35.322	258	0.137		
	Sum	3179.430	266			
Self-reliance	Biological sex(A)	1.952	1	1.952	11.795***	
	Sex-role identity type(B)	39.394	3	13.131	79.356***	0.580
	A×B	2.467	3	0.822	4.969**	
	Error	42.692	258	0.165		
	Sum	3127.050	266			

* $p<0.05$, ** $p<0.01$, *** $p<0.001$

물학적 성($F=8.192$, $p<0.01$)과 성역할 정체감 유형($F=87.12$, $p<0.001$)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식관련 남성 전공자($m=3.51$, $sd=0.69$)가 여성 전공자($m=3.03$, $sd=0.61$)보다 결정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역할 정체감 유형 중 양성성 유형의 전공자($m=3.93$, $sd=0.56$)가 결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유형의 전공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결정성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면 양성성, 남성성, 미분화로 분류된 남성 전공자가 양성성, 남성성, 미분화로 분류된 여성 전공자보다 진로에 대한 결정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성으로 분류된 여성 전공자는 남성 전공자보다 결정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5.064$, $p<0.01$).

둘째, 진로태도성숙 요인 중 목적성에 대한 생

물학적 성($F=10.840$, $p<0.001$)과 성역할 정체감 유형($F=32.206$, $p<0.001$)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식관련 남성 전공자($m=3.56$, $sd=0.61$)가 여성 전공자($m=3.13$, $sd=0.59$)보다 목적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역할 정체감 유형 중 양성성 유형의 전공자($m=3.80$, $sd=0.57$)가 목적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유형의 전공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목적성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면 양성성, 남성성, 미분화로 분류된 남성 전공자가 양성성, 남성성, 미분화로 분류된 여성 전공자보다 진로에 대한 목적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성으로 분류된 여성 전공자는 남성 전공자보다 목적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4.355$, $p<0.01$).

셋째, 진로태도성숙 요인 중 독립성에 대한 생

물학적 성($F=18.633, p<0.01$)과 성역할 정체감 유형($F=63.452, p<0.01$)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식관련 남성 전공자($m=3.61, sd=0.60$)가 여성 전공자($m=3.10, sd=0.56$)보다 독립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역할 정체감 유형 중 양성성 유형의 전공자($m=3.96, sd=0.50$)가 독립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남성성, 여성성과 미분화 유형의 전공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독립성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1.041, p>0.05$).

넷째, 진로태도성숙 요인 중 준비성에 대한 생물학적 성($F=5.779, p<0.01$)과 성역할 정체감 유형($F=85.491, p<0.001$)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식관련 남성 전공자($m=3.56, sd=0.54$)가 여성 전공자($m=3.19, sd=0.51$)보다 준비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역할 정체감 유형 중 양성성 유형의 전공자($m=3.91, sd=0.43$)가 준비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유형의 전공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준비성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1.026, p>0.05$).

다섯째, 진로태도성숙 요인 중 확신성에 대한 생물학적 성($F=11.795, p<0.001$)과 성역할 정체감 유형($F=79.356, p<0.001$)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식관련 남성 전공자($m=3.54, sd=0.60$)가 여성 전공자($m=3.12, sd=0.57$)보다 확신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역할 정체감 유형 중 양성성 유형의 전공자($m=3.90, sd=0.55$)가 확신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유형의 전공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확신성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면 양성성, 남성성, 미분화로 분류된 남성 전공자가 양성성, 남성성, 미분화로 분류된 여성 전공자보다 진로에 대한 확신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성으로 분류된 여성 전공자는 남성 전공자보다 확신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4.969, p<0.01$).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외식관련 전공자들의 생물학적 성과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진로태도성숙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이에 따른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태도성숙의 하위요인인 결정성, 목적성, 독립성, 준비성, 확신성에 대해 외식관련 여성전공자 보다 남성 전공자의 성숙도가 통계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Lee JH·Kim SJ(2009), Lim JS 등(2012)의 연구에서 남성의 진로태도성숙 수준이 여성에 비해서 더 높다는 사실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외식관련 전공의 교수는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을 사용하여 외식관련 여성전공자의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고성과 직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지향성, 진로선택에 대한 믿음과 확신, 사전이해와 준비정도, 자신의 진로문제를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진로지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양성성 유형으로 분류된 외식관련 전공자의 진로태도성숙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시되는 현대사회에서 여성성과 남성성이 모두 높은 성향, 즉 양성성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더 바람직한 성역할 개념이라는 최근의 연구결과(Kim EH·Kim BW 2010; Lee SH·Lee EJ 2009)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외식관련 여성 전공자들에게 남학생과 같이 진로태도성숙도를 높여 성역할 태도를 진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진로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외식관련 전공자들의 진로발달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외식관련 전공자의 성역할 정체감의 단계적인 변

화를 시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식관련 전공분야의 사회구조적으로 성차별에 대한 인식을 불식시키고 여성 전공자의 사회참여를 제도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양성성, 남성성, 미분화의 성역할 정체감을 가지고 있는 남학생은 양성성, 남성성, 미분화의 성역할 정체감을 가지고 있는 여학생보다 진로에 대한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성의 성역할 정체감을 가지고 있는 여학생은 여성성의 성역할 정체감을 가지고 있는 남학생보다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독립성과 준비성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 KH(2003)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외식관련 전공자의 진로태도성숙의 원인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성 변인 또는 성역할정체감 유형을 개별적으로 고려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물학적 성 특성과 성역할 정체감 유형의 일치 여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외식관련 전공 교수들이 진로상담을 할 때에 전공자의 진로태도성숙 수준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생물학적 성 특성과 성역할 정체감의 일치여부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대의 많은 여대생들이 양성성 유형으로서 사회적 성역할을 수용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성역할 정체감의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여성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외식관련 전공자의 진로 모색을 위한 학교 측의 노력과 정책적 대안, 예를 들면 푸드 스타 일리스팅이나 바리스타 분야와 같은 여학생 취업에 중점을 둔 교과과정 개설이나 여학생을 위한 진로 상담 시스템 등을 집중개발 하여 전공분야의 진로 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몇 가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대학의 외식관련 전공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연구를 진행하

였으므로 결과를 전체 외식관련 전공자로 일반화하는 데는 어느 정도 제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표집 대상을 다양한 지역과 학교 형태별로 확대하여 이루어졌으면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외식관련 전공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여성들의 종사가 부진한 남성 지배적 전공분야 또는 남성들의 종사가 부진한 여성 지배적 전공분야로의 연구 범위를 확대하여 외식관련 전공분야와의 비교연구가 이루어지며 진로상담에 보다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글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외식전공 대학생들의 생물학적 성과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진로태도성숙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대전,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2년제 전문대학 4개교에서 외식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300명의 표본을 추출하였고 34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총 266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태도성숙 수준은 외식관련 여성전공자 보다 남성 전공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태도성숙 수준은 양성성 유형의 외식관련 전공자의 성숙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외식관련 남성 전공자 중 양성성, 남성성, 미분화로 분류된 전공자의 진로에 대한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이 여성 전공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전공자 중 여성성으로 분류된 전공자의 진로에 대한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이 남성 전공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외식관련 전공자의 생물학적 성과 성역할 정체감을 고려한 진로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양성성 유형의 전공자가 진로 발달에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외식관련 전공자의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양성성을 강화할 진로상담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임언, 정윤경, 상경아(2001). 진로성숙도 검사 개발 보고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164.
- Back YR(2008). On emotional labor and exhaustion of female hotel culinary staff. Master Thesis, Kyonggi University 1-121, Seoul.
- Bem SL(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 of Clinical and Counseling Psychology* 42(2):155-162.
- Burnett JW, Anderson WP, Heppner PP(1995). Gender roles and self-esteem: A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factors. *J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3(3):323-326.
- Cha JE, Kim AY, Lea EK, Kim BH(2007). Gender difference and developmental trend in career maturity and career indecision among adolescents. *The Korean J of Educational Psychology* 21(4):923-944.
- Cho TY, Lee MS(2009). A study on the differences in vocational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flight services-related studies. *J of the Aviation Management Society of Korea* 7(1):69-86.
- Choi IS, Kim CH(2004). The effects of sex-role identity upon school adjustment behavior. *The Korean J of Educational Psychology* 18(1):131-143.
- Chung JK(1990). Korean sex role inventory (KSRI). *Korean J of Social Psychology* 5(1): 82-92.
- Crites JO(1961). A model for the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J of Counseling Psychology* 8(3):255-299.
- Gottfredson GD(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 of Counseling Psychology* 28(6): 545-579.
- Jeong HY(2010). A study o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values and self-efficacy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beauty. Doctoral Thesis, Kyungung University 1-104, Kyonnam.
- Ji YK(2004). The effect of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on career attitude maturity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J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17(1):106-122.
- Kang JH(2005). Human resources management in the family restaurant industry. Master Thesis, Kyonggi University 1-101, Seoul.
- Kim EH, Kim BW(2010). A study on the career search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y gender role identity. *The J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9(4):165-183.
- Kim HJ(2013). A study on the effects of downsizing kitchen employees in hotel on job attitude: Focusing on the individual behavior types (DISC) of kitchen employees in the hotels in the Seoul and Daejeon regions. *The Korean J of Culinary Research* 19(3):1-17.
- Kim HR(2003). Gender role identity and depression among adolescents. Doctoral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1-167, Seoul.
- Kim JU, Kim MS(2012). The effects of career group counseling based upon multiple intelligence theory on career decision-making, career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for college students. *The J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5(3):201-227.
- Kim MH(2010). A study on the quality of work life of women chefs at five star hotels in Seoul. Master Thesis, Kyonggi university 1-78,

- Seoul.
- Koo CM(2005). The influence of sex role identity of college students in physical education majors on the vocational maturity: Around college in Choongchung province. *Korean J of Sociology of Sport* 18(3):311-326.
- Koo HY, Park HS(2005).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its predictors of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 of Counseling* 6(2):373-385.
- Ku SH(2006). The effects of career education programs about gender equality on career awareness and on the development of gender equalization in elementary students: This study is based on a fishing village. Master Thesis, Chinju National University 1-96, Kyongnam.
- Lee HR, Cheon MS (2003). The effects of career maturity levels on job values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of Korean women. *The J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16(2): 1-34.
- Lee JH, Jeong KY(2009). An analysis of friendship by gender-role identity in higher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J of Child Studies* 30(4):117-133.
- Lee JH, Kim SJ(2009). Influence of specialization level on dance attitude and career maturity of dance major students. *The Korean J of Dance* 58:213-228.
- Lee KH(2003). The effect of the accordance of the gender characteristics and sex-role identity on the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decision barriers. *The Korean J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5(2):353-366.
- Lee KH, Han JC(1997). The maturity of career attitude comparison research according to high school students' gender differences and curricular. *The Korean J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9(1):335-349.
- Lee SH, Lee EJ(2009). The influences of gender role identity, and gender role attitude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The Korean J of Counseling* 10(4): 2137-2151.
- Lim JS, Choi YI, Kim KH(2012). The effect of the family relationship, ego identity and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on career maturity in university students. *The J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5(1):151-167.
- Oh ST(201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education and job preference among culinary students based on their high schools. *The Korean J of Culinary Research* 19(4):291-306.
- Park SJ(2008). Duty satisfactory morality of five star hotel woman logic company the research: Based on the five star hotels. Master Thesis, Chodang University 1-90, Jeonnam.
- Seon HY(2011). The difference in career maturity and purpose of entering graduate school among undergraduates, graduate students, and returning-adults students. *J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32(2):165-179.
- Spence JT, Helmreich RL, Stapp J(1975). Ratings of self and person sex role attributes and their relation to self-esteem and conceptions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J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32(1):29-39.
- Super DE(1955). The dimension and measurements of vocational maturity. *Teacher College Record* 57(3):151-163.
- Wolfe LK, Betz NE(1981). Traditionality of choice and sex-role identification as moderators of the congruence of occupational choice in college women. *J of Vocational Behavior* 18(1):43-55.
- Yang MH, Park MJ, Kim HJ(2010). The effects

of congruence, score elevation & types of interest on college students` career maturity and satisfaction with major. *The J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9(2):137-156.

Yoon D, Tak JK, Lee SH(2009). A study between female students in college of engineering and humanities by sex role identity, self efficacy and career maturity. *The Korean J of Woman Psychology* 14(4):497-514.

Yoon JY(2010). Work values of restaurant man-

agement students at university level. *Korea Academic Society of Hotel Administration* 19(6):309-322.

2014년 04월 27일 접수

2014년 05월 20일 1차 논문수정

2014년 05월 30일 2차 논문수정

2014년 06월 05일 3차 논문수정

2014년 06월 10일 논문게재확정